

진도군, 일자리사업 안전

사고 발생 제로화 앞장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 교육 실시



진도군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산림바이오매스, 침엽 굴제거단,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참여자와 사업별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열렸다.

안전 교육은 주요 사업·장비별 안전 작업 요령 등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장비 사용 등에 대한 미숙련자들이 많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됐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2019년 가구

주택기초조사 실시

무안군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관내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의 보완 및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거주와 가구이며 무안군은 약 4만가구가 해당되며 약 1만 5000가구에 대해서는 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거주종류, 빈집여부 등 특성항목을 포함한 12개 항목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2020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함평군은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업인 소득 안정 보험이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9900만 원을 들여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65종)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다.

가입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농지원부·작물금명세서 등 경작 증명서류와 친환경 인증서, 유기인증 필지내역이 기재된 보험증권 등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농가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보험료의 20%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야 한다.

앞으로 군은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 유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무농약 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백형규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를 미리 대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 농가는 서둘러 가입해 보험료 전액 지원이라는 큰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춘 기자



강진군 관광협의회 워크숍 개최

관광산업 종사자·문화관광재단 등 130여 명 참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 전남 서남부권 체류형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뫼졌다.

강진군은 10월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다산배아재 골프&리조트에서 당연직 이승욱 군수를 비롯하여 강진군 관광협의회 회원, 공무원, 유관기관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500만 명 시대’ 원년의 해 실현을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강진군 관광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김호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관광협의회 회원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

사드리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진 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전략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첫날은 강진군 관광과장의 2019년도 관광분야 주요 성과 및 2020년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전략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어 문화일보 박경일 부장, 이민학 여행작가, 박종찬 광주대 교수 등 관광전문가로부터 강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2일차는 생태해설사와 함께 갈대숲길 걷기 등 현장 체험행사가 마련되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민간 중심



의 관광구조체계 변화에 따라 강진군 관광협의회 역할과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협의회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강진군 관광협의회는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당연직 이승욱 강진군수와 함께 선출직 강진주류 김호제 대표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사 1명과 감사 2명 등 60명의 회원을 3개 분과로 나눠 강진군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마케팅, 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 농·특산물 전국 김스클럽서 만난다

장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전’이 전국 김스클럽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장성군은 사과, 단감, 양파, 새송이 등 지역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장성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엘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

전’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남점, 타점 등 전국 김스클럽 36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 기획전은 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이 주관하고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획전에서는 장성 제철 농산물인 사과, 단감, 햅쌀 등의 시식 행사도 열려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김스클럽 강남점에서는 장성의 농산물과 함께 엘로우시티 장성의 황금떡, 편백제품 등 다양한 가공특산품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의 주요 품목인 ‘장성사과’는 높은 당도, 풍부한 과즙, 좋은 식감 등 뛰어난 품질로 인기가 높다. 또 ‘장성단감’은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재배되어 씨알이 굵고 맛과 향이 좋으며, 당도와 유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영암군, 기(氣)찬 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 축제 성황



영암군은 지난달 30일 월출산기찬랜드 김창조 야외공연장에서 어르신들과 내외빈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氣)찬 경로당 건강백세 한마당 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찬 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51개 경로당 어르신들

700여명이 그동안 익힌 기량을 한껏 뽐내는 자리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바람나고 열정 넘치는 실력을 선보였으며, 식전 및 부대행사로 영암여자고등학교 스텝동아리 학생들의 방송댄스, 댄스 스포츠 공연, 영암여자고등학교 금연공감학교 학생들의 금연송을 이용한 댄스공연과 지난달 8일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2019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 영암군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갱년기 탈출, 뭉! 뭉! 뭉!’ 팀, 경로당 지도강사들의 특별공연으로 흥겹고 즐거운 한마당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화의 아름다운 향기와 가을의 정취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월출산 국화축제와 함께하면서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